

# 1 웨거 “박주영 올시즌 계획에 포함”

(아스널 감독)

## 사커 토막

### 1 박주영, 경기에 뛠 수 있는 시나리오

#### 2 겨울 유럽이적시장때 하부리그까지 염두

#### 3 브라질월드컵 대비 K리그 복귀 가능성도

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원 톱 부재에 고민이다. 경기를 치를수록 박주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다음 달 A매치 때 홍 감독이 박주영을 부르기는 쉽지 않다. “소속 팀에서 못 뛰는 선수는 뽑지 않겠다”는 홍 감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 박주영이 계약에 못 나서고 있어 기량도 완전히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주영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기에 뛰어야 홍 감독도 뽑을 명분이 생긴다. 홍 감독은 영국으로 건너가 15일(한국시간) 선덜랜드-아스널전을 지켜봤다. 박주영은 예상대로 출전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홍 감독은 경기 후 박주영을 따로 만나 그가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영이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시나리오는 대략 3가지로 압축된다.

#### ●웨거 신력 회복?

박주영과 아스널의 계약기간은 알려진 것



박주영(왼쪽)이 홍명보 감독의 '원 톱 부재'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박주영은 일단 어디서든 뛠 수 있는 팀을 찾는 게 급선무다. 스포츠동아DB

처럼 내년 여름이 아닌 2015년 6월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스널이 박주영을 FA(자유계약)로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지금은 이적이 아예 불가능하다. 유럽 이적에 밝은 에이전트는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시장 마감 전에 선수와 구단이 계약해지 합의서를 썼어야 FA 신분으로 자유롭게 이적이 가능하다. 박주영이 25인 로스터에 들었다는 것은 계약해지를 안 했다는 것이고, 올 여름 이적이 아예 안 된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

런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아스널 웨거 감독 눈에 들어 출전기회를 얻는 게 급선무다. 이 시점에 웨거가 박주영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해 눈길을 끈다. 웨거는 선덜랜드 원정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박주영을 출전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박주영은 올 시즌 우리의 계획에 포함돼 있다. 다만 최근 부상이 있어 출전하지 않은 것뿐이다. 몸 상태가 완벽하다면 그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그대

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저 원론적인 수준일 수 있다.

#### ●겨울에 유럽 이적?

박주영은 내년 1월 겨울 이적시장 때 새 동지를 모색해야 한다. 박주영이 유럽에 남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다른 유럽 리그나 하부 리그를 계속 노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주영이 경기에 못 나서고 있어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유럽 내 이적이 쉽지 않아 보인다.

#### ●국내 복귀?

올 겨울에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리그로 눈을 돌릴 수 있다. 일단 중국 가능성은 낮다. 박주영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 여름에도 거액의 이적료와 연봉을 제안한 중동 팀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국내 복귀도 고려해볼만 하다. 이 경우 임대 가능성도 있다. 국내 구단이 높은 이적료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또 박주영도 국내 복귀를 유럽 무대 재진출을 위한 중간단계로 생각할 공산이 크다. K리그에서 착실히 훈련하고 계임을 뛰며 기량을 회복해 내년 브라질월드컵에서 진가를 발휘한 뒤 다시 유럽 문을 두드리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윤택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손흥민의 레버쿠젠이 15일(한국시간) 레버쿠젠 베이어레나에서 끝난 독일 분데스리가 5라운드에서 구자철의 볼프스부르크를 3-1로 제압했다.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췄던 손흥민과 구자철은 이날 각각 왼쪽 측면 공격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코리안 더비'를 치렀다. 손흥민은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며 후반 5분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골키퍼와 1대 1로 맞섰으나 솟은 오른쪽 골포스트를 살짝 빗나갔다. 후반 35분 교체 아웃. 구자철은 후반 14분 1-1 동점 상황에서 나왔다. 손흥민은 이날 LG전자 초청으로 경기장을 찾은 레버쿠젠의 전설 차범근 SBS해설위원(왼쪽)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제공 LG전자

## 최현길의 사커에세이

### 스플릿시스템 유지돼야 한다…왜?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는 고달프다. 1년 내내 살얼음판이다. 위태위태한 걸음이지만 미끄러져선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레이스를 치러야 한다. 공부야 학생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외에는 부모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부모도 알아야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신경 쓸 일이 많다. 네 경험상 최대한 짧은 모집 전형 파악이다. 제도 자체를 이해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2014학년도 전국 215개 대학의 모집전형은 수시 1846개, 정시 1037개로 전체 2883개다. 원하는 대학의 수시전형 요강을 살펴봐도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다. 지난해 경험한 지인에게 묻거나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 공부해야 겨우 알 수 있다.

최근 정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바뀐다. 학부모는 괴롭다. 해방 이후 우리 대입제도는 수 없이 변해왔다. 대학별 단독시험제,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능력평가 등 수 많은 용어들이 등장한다. 마치 무렵소설의 종파 같다. 누더기 입시제도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이렇게 해선 백년대계는 어렵도 없다.

파란만장한 입시 제도를 보면서 프로축구 K리그의 리그운영방식이 떠오른다. 꼭 닮았다. K리그도 한 가지 제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이랬다저랬다 반복했다. 진득한 게 없다. 올해 다르고 내년에도 또 다르니 팬들은 헷갈린다. 올해 K리그는 출범 30년이 됐지만 리그운영을 보면 연륜이 쌓여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단일리그, 전후기리그 및 4강 PO, 단일리그 및 6강 PO, 전후기리그 및 챔피언결전 등을 시행했다. 하도 자주 바뀌다보니 20년 이상 K리그를 지켜본 나도 아리송하다.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

지난해부터는 상·하위리그 스플릿시스템을 채택했다. 이는 강팀끼리의 대결 횟수를 늘려 흥미를 돋우자는 취지다. 강자끼리 우승팀은 물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3위 이내)의 주인공을 가리니 박진감이 넘친다. 팬들도 즐겁다. 상위권끼리의 빅 매치, 더비는 이미 관심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위리그 팀들도 강등권 탈출을 통한 1부 리그 잔류라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제도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들린다. 하위리그 팀들의 주장이 강하다. 하위리그로 떨어지면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는 게 골자다. 하위리그는 아무리 잘해도 상위리그 꼴찌보다 못한 등수가 된다. 이는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기회와 박탈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얘기를 묵살하고픈 생각은 없다. 6강이나 4강 PO 때도 불만은 있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건 없다. 그런데 한시적 도입이라고 해도 스플릿시스템은 어느 때보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시즌 중간에 이처럼 긴장감을 준 제도는 없었다. 한국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가미된 제도라는 생각도 든다.

아울러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불만이 제기되자 이따다 싫어 또 다른 제도를 구상한다면 누더기 제도라는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마인드라면 어떤 제도인을 온전할까. 제도의 효과를 봤다면 어떤 식으로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프로연맹 이사회가 할 일이다. 부분적인 보완이란 몰라라 전체를 뜯어고친다는 건 말 안 된다.

긴장감 없는 프로는 존재할 수 없다. 강팀끼리의 대결은 활력을 불어넣고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내년에도 스플릿시스템은 계속되어야 한다.

스포츠 2부 부장

## FA컵 결승행 황감독과 최감독의 썰전

### 황 “5경기 모두 원정이지만 이긴다” 최 “이승기 복귀…그때와는 다르다”



전북 최강희 감독



포항 황선홍 감독

“3-0 승리로 전북 원정 부담을 깨끗이 털었다.” 15일 전북 현대 FA컵 결승 상대로 확정된 순천 스포츠동아는 하루 먼저 결승에 진출한 포항 스틸러스 황선홍 감독과 전화 통화를 했다. 황 감독의 목소리에는 비장함과 함께 여유가 흘렀다. 황 감독은 “(전북이 이기면서) FA컵 5경기 모두 원정을 치르게 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결승에 갔는데 진다는 상상은 안하고 있다. (FA컵 결승까지) 열흘 정도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다. 좋은 승부할 것이다”고 말했다. K리그 클래식은 다음달 9일 경기를 갖고 3주 가까운 휴식을 갖는다. FA컵 결승은 10월 19일 또는 20일 전주에서 열린다. 황 감독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다. 포항은 상·하위그룹으로 나뉜 8월 27라운드 첫 경기에서 전북 원정을 떠났다. 분위기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전북은 10경기 무패행진(7승3무)으로 상승세를 탔다. 반면 포항은 체력저하로 경기력이 조금씩 떨어졌다. 전문가들도 전북의 승리를 점쳤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포항은 강한 응집력으로 전북을 몰아붙이며 3-0으로 이겼다. 작년 10월 전북 원정에서 같은 결과를 얻기도 했다. 2차전 3-0 승. 황 감독은 “선수들이 원정의 어려움을 떨쳐냈다. FA컵 2연패를 이룰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 최강희 감독도 이날을 기억하고 있다. 15일 부산을 꺾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설욕을 다짐했다. 그는 “8일 포항전은 기대도, 준비도 많이 했는데 컨디션 트레이닝이 잘못돼 힘든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기 등 부상자가 복귀하면 정상적인 준비가 가능하다. 2005년 FA컵 우승 이후 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 성남 서포터스, 연고이전 반대 축구 시위

성남 일화 연고이전 반대 축구시위가 열렸다. 국민생활체육 성남시 축구연합회와 성남 서포터스 등 200여 명은 15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연고이전을 반대하고 시민구단 창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며 운동장에서 행진을 벌였다. 대책위는 성남시가 즉각 프로축구단을 인수해 시민구단을 창단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산 미드필더 김익현(왼쪽)이 15일 열린 FA컵 준결승에서 전북 김신영을 등지며 공을 따내고 있다.

부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kine007

## 전북 이규로, 부상 안긴 부산에 결승골로 되갚다

### ■스타 플러스

최강희감독 후반전 교체투입 승부수 적중 전북, 부산 3-1 제압…포항과 결승다툼



4강전

전북 현대와 부산 아이파크의 2013 하나은행 F A컵 4강전이 열린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1-1로 팽팽하던 균형은 한 순간에 갈렸다. 후반 12분 전북 오른쪽 풀백 이규로(25·사진)의 오른쪽 발이 번쩍었다. 부산 문전 외곽까지 전진한 이규로는 케빈의 패스를 이어받아 아크 정면에서 날카로운 슛을 날렸다. 정확한 궤적의 공은 부산 골망을 출렁였다. 이 한 방으로 탄력 받은 전북은 후반 추가시간 레오나르도의 썸머골까지 더해 3-1로 이겼다. 결승전은 제주 유나이티드를 4-2로 누른 포항 스틸러스와 전북이 10월19일 또는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갖는다.



#### ●부상 악령 탈출한 이규로

경기를 앞둔 전북 최강희 감독은 “(이)규로가 안착할 때까지 1~2주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최근 전북은 주력들의 줄부상으로 스쿼드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규로도 최악의 몸 상태가 아니었다. 본래 오른 발목이 아팠던 그는 6월1일 K리그 클래식 부산과 홈경기(1-4 전북 패)에서 오른쪽 무릎을 다친 이후 3개월 간 재활에 전념했고, 볼 훈련을 한 지는 이틀에 불과했다. 또 포지션 특성상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호출받기 어려웠다. 이날 전북은 선발 라인업에 중앙 수비수 김기희를 측면으로 들렸다.

하지만 상황이 꼬였다. 전북은 전반 10분 아크 오른쪽에서 케빈의 패스를 받은 정혁의 오른 발 키로로 리드했지만 부산이 전반 25분 이성

호의 헤딩 골로 따라붙었다. 앞친 데 뒤휌 격으로 김기희는 전반 초반 허리를 다쳐 후반을 소화하기 어려웠다. 결국 최 감독은 하프타임 직후 이규로를 투입했다. 주로 전북 오른쪽을 파고드는 부산의 강한 역공을 막고, 적절한 오버래핑으로 공격에 가담하기를 기대했다.

승부수는 적중했다. 이규로는 적절한 타이밍의 공격 가담과 수비 안정으로 팀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최 감독은 “무리하지 말고 경기 운영만 90% 해 달라”고 당부했더니, 결승골도 책임졌다. 부상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앞으로 더 기대된다”며 칭찬했다.

이규로도 “(부상을 안긴) 부산이라 신경이 쓰인 건 맞지만 기회를 준 감독님께 보답하고 싶었다. 늘 팀에 미안했다. 최대한 안 다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선배들의 커버플레이 덕을 많이 봤다. 의욕이 넘친다. 체력이 좋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부산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